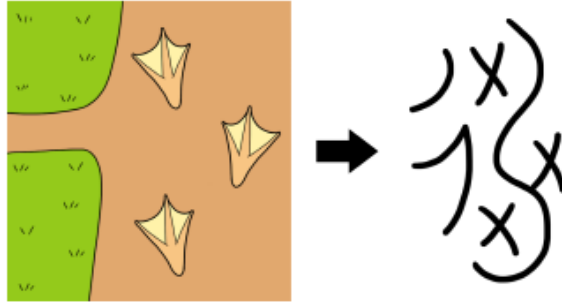


회의문자①



逃

도망할
도

逃자는 '달아나다'나 '피하다', '숨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逃자는 辵(쉬엄쉬엄 갈 척)자와 兆(조짐 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兆자는 거북의 배딱지(腹甲)에 갈라진 점괘를 그린 것으로 '조짐'이라는 뜻이 있다. 그런데 금문에 나온 逃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금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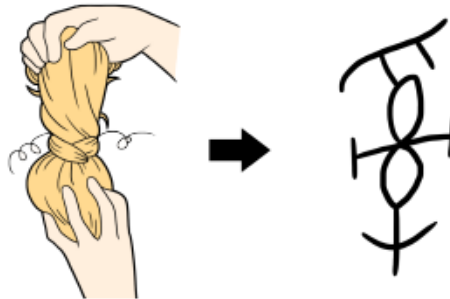
서는 彳(조금 걸을 척)자에 짐승의 발자국이 이리저리 𠂔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냥감이 도망갔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兆자가 발음역할을 하게 되면서 본래의 의미를 유추하기 어렵게 되었다.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亂

어지러운
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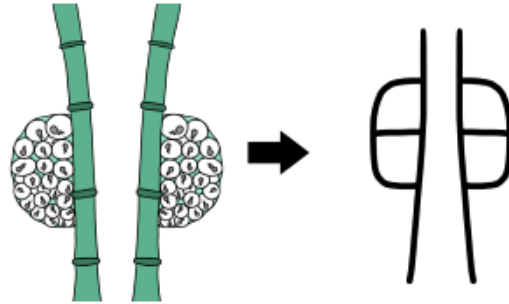
亂자는 '어지럽다'나 '손상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亂자는 실타래를 손으로 풀고 있는 𠂔 모습과 乙(새 을)자가 결합한 것이다. 𠂔자는 엉킨 실타래를 손으로 풀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금문까지만 하더라도 '어지럽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여기에 乙자가 더해지면서 도구를 이용해 실타래를 푸는 모습을 표현하게 되었다.

금문

소전

해서

상형문자 ①



卵

알 란:

卵자는 '알'이나 '고환', '굶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卵자는 '알'을 그린 것이다. 그런데 알이라고 하기에는 모양이 다소 이상하다. 왜냐하면, 卵자는 새가 아닌 곤충의 알을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곤충은 나무나 풀줄기에 알을 낳는 습성이 있는데, 卵자는 그것을 본떠 그린 것이다. 그래서 卵(병부 절)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卵자는 곤충의 알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알'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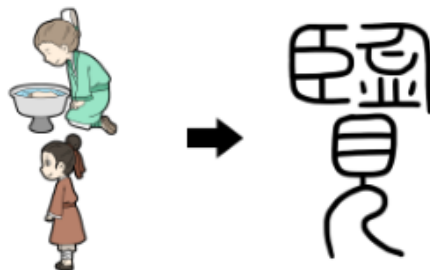
卵

소전

卵

해서

회의문자 ①



覽

볼 란

覽자는 '보다'나 '두루 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覽자는 監(볼 감)자와 見(볼 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監자는 세숫대야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다'라는 뜻을 가진 監자에 다시 '보다'를 뜻하는 見자를 더한 것이니 얼마나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것일까? 覽자는 관람(觀覽)이라는 단어처럼 이리저리 '둘러보다'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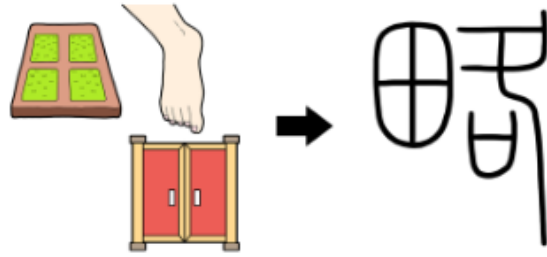
소전

覽

해서

4
-
65

회의문자 ①



略

간략할/
약할 략

略자는 '간략하다'나 '약탈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略자는 田(밭 전)자와 各(각각 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各자는 발이 어느 지점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각자'나 '각각'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略자는 이렇게 '각자'라는 뜻을 가진 各자에 田자를 결합한 것으로 본래는 각자의 논밭을 구분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졌었다. 하지만 略자가 마치 남의 영토를 침범하는 듯한 모습을 연상시키게 되어 후에 '노략질하다'나 '약탈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또 어떠한 것을 간략하게 한다는 의미까지 더해지면서 지금은 '간략하다'나 '약탈하다'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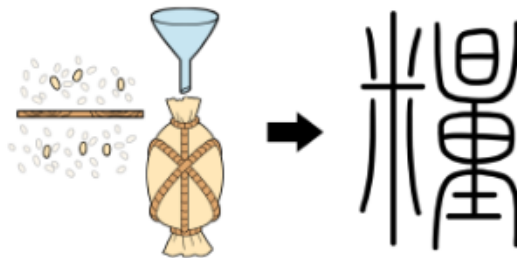
소전

略

해서

4
-
66

회의문자 ①



糧

양식 량

糧자는 '양식'이나 '먹이', '급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糧자는 米(쌀 미)자와 量(헤아릴 량)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量자는 갈대기를 이용해 보따리에 곡식을 담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여기에 米자가 더해진 糧자는 곡식이 담겨있는 보따리라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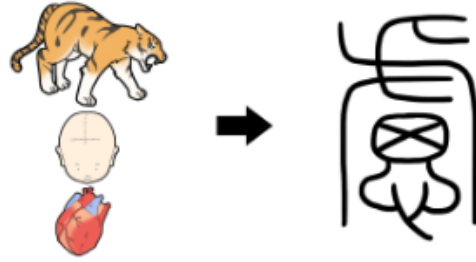
糧

소전

糧

해서

회의문자①



慮

생각할
려:

慮자는 '생각하다'나 '걱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慮자는 虎(범 호)자와 思(생각할 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思자는 사람의 정수리와 심장을 함께 그린 것으로 '생각'이나 '심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전에는 산길로 다닐 때 무엇이 가장 걱정됐을까? 아마도 산짐승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가장 걱정이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호랑이를 만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다. 慮자는 그러한 의미가 반영된 글자로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진 思자에 虎자를 더해 '우려되다'라는 뜻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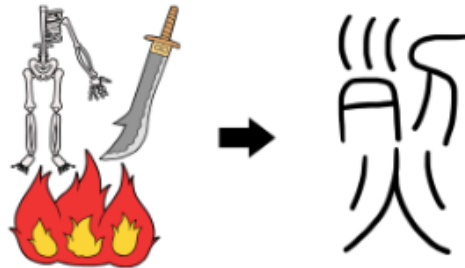
慮

소전

慮

해서

회의문자①



烈

매울 렬

烈자는 '기세'나 '사납다', '포악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烈자는 火(불 화)자와 列(별일 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列자는 '별이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烈자에서 말하는 '기세'나 '사납다'라는 것은 불길이 세차게 타오른다는 뜻이다. 다만 지금의 烈자는 온몸을 바쳐 희생한다는 의미에서 '아름답다'나 '빛나다'와 같은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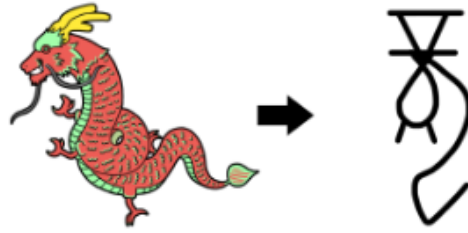
烈

소전

烈

해서

상형문자①



龍

용 룡

龍자는 '용'이나 '임금'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용은 소의 머리와 뱀의 몸통, 독수리 발톱과 같이 다양한 동물들의 신체를 조합해 만든 상상의 동물이다. 용은 신비의 동물이자 신성함을 상징했다. 그래서 고대 중국에서는 용을 신비의 대상으로 삼아 수많은 신화나 전설을 만들어 냈다. 龍자는 바로 그 전설의 동물을 문자화 한 것이다. 갑골문에 처음 등장한 龍자는 용의 머리와 몸통이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문자의 형태를 갖추게 되면서 다양한 글자가 조합되었다. 따라서 龍자에 쓰인 立(설 립)자나 月(달 월)자는 단순히 용의 모습을 한자화한 것일 뿐 글자가 가진 의미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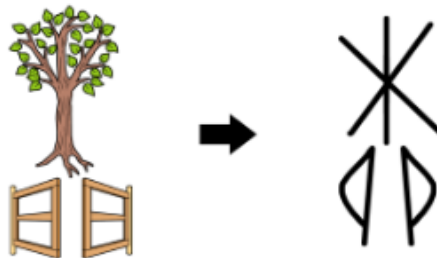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柳

버들
류(:)

柳자는 '버들'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柳자는 木(나무 목)자와 卯(토끼 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卯자는 조그만 간을 문을 열어놓은 모습을 그린 것이다. 갑골문에서의 柳자는 木자 아래에 卯자가 그려진 형태였다. 이것은 치렁하게 늘어진 버드나무 가지를 연상케 한다. 그래서 갑골문에서의 柳자는 늘어진 버드나무 가지를 표현했던 것으로 보인다. 버드나무의 부드러움과 연약함은 가녀린 여인을 연상케 했다. 그러다 보니 柳자는 '연약한 여인'이나 '허약함'을 뜻하기도 한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